

8 사람



끊임없는 분석과 자신감으로 한국 태권도의 역사를 금빛으로 새긴 박태준 선수를 만나봤다.

(사진=하시언 기자)

올림픽 남자 태권도 58kg급 최초의 금메달 “철저한 분석으로 얻은 자신감이 만든 결과”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태권도학 2023) 선수

우리나라는 태권도 중주국으로 국제무대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실력 평준화가 이뤄지며 2020 도쿄올림픽에선 ‘노골드’로 중주국의 체면을 구겼다. 그렇게 구겨진 체면을 만 20세의 박태준(태권도학 2023) 선수가 살려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대표 선발부터 남자 태권도 58kg급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까지, 그리고 부상당한 상대를 시상식에서 부축해 주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포츠라이트의 반대편에서 성공적인 변화구를 던지기까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탈락한 후 선수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항저우에 맞춰져 있었어요. 대표 선수로 뽑힌 장준 선수와 같은 공간에서 운동했는데, 동기 부여가 됐죠.” 박 선수는 당시 세계랭킹 1위였던 장준 선수에 패해 아시안게임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다. 박 선수는 이후 꼭 올림픽에 출전해

지원과 관심을 많이 받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2년 뒤 둘은 2024 파리올림픽 티켓을 두고 선발전 결승전에서 다시 만났다. 선발전 결승을 앞두고 끊임없이 분석했다. “새로운 변화를 주자”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지난 패배의 아픔을 딛고 박 선수는 변화구를 던졌다. 체급을 54kg에서 58kg으로 변경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항상 왼발을 앞발로 두고 시작했지만, 이번엔 오른발을 앞발에 뒀다. 장준 선수 분석 결과, 장준 선수가 오른발이 앞발인 상대에게 승률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모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라며 웃으며 말했다. 불투명할 수도 있었던 모험은 박 선수에게 파리행 티켓을 선물했다. 체급 변경과 철저한 분석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장준 선수에 번번이 패하던 과거를 날려준 성공적인 ‘변화구’였다.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으로 금빛을 향해 내던진 직구

박 선수는 모두가 바라보는 올림픽 무대에서 화려하거나 재밌는 기술로 경기를 운영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올림픽만큼은 직구를 택했다.

“갑자기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면 페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원래 하던 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올림픽 대진표를 보고 상대 선수의 사소한 습관까지 포착해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해서까지 준비를 많이 했죠.” 끊임없는 분석과 자신감은 금메달을 위한 복선이었다.

그렇게 서게 된 올림픽 무대. 탄탄한 실력에서 우리나라의 자신감으로 경기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다. 박 선수는 세계랭킹 1위, 튀니지의 모하메드 칼릴 젤두비 선수와 준결승에서 맞붙었다. 젤두비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장준

선수를 무릎 꿇린 강자였다.

박 선수도 젤두비에게 패한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자신을 믿기로 했다. “준결승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던 1순위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준비한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치열한 승부 끝에 마침내 올림픽 결승 무대에 올랐고 모든 결실이 맺히는 순간을 맞이했다. 세계랭킹 1위를 물리친 박 선수는 시원한 발차기와 공격적인 플레이로 결승을 운영했다. 그러나 2라운드 도중, 접근

전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부상당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부상 상황이었지만, 박 선수는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열정적인 경기 끝에 확실한 마무리로 경기를 끝낸 박 선수는 한국 태권도의 끊어진 역사를 다시 한번 금빛으로 새겼다.

결승 무대를 완전히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질문에 “결승전이라는 무대를 끝까지 완벽히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승패를 떠나 아쉬울 수 있지만, 예선에서 여러 고비를 넘기며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답답히 답했다.

경기 후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금메달이 확정됐지만 기쁨을 뒤로한 채 부상당한 상대의 상태를 걱정하며 거듭 확인했고, 상대가 걸어 나가는 걸 본 이후에야 금메달을 기뻐하며 관중의 환호에 화답했다.

시상대에 오른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부상으로 결승전에서 기권했던 마고메도프를 부축하며 함께 시상대까지 걸어갔다. 그 순간은 승패를 넘어 경기 이후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의 상징으로 남았다. 결승전의 승리뿐만 아니라 시상대에서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될 때까지 했어요” 타이틀보다 꾸준함이 목표

금메달 뒤에는 정을진 감독과 신경현 코치의 든든한 지원과 피나는 노력을 꼽았다. 정 감독은 ‘창조와 모방’을 강조했다. 박 선수는 “감독님께서 상대의 실용성 있는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무기가 하나씩 생긴다고 했어요.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따라 해 될 때까지 했죠.” 그는 다른 선수들의 기술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했다. 그리고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이를 자신만의 새로운 기술로 승화시켰다.

박 선수의 다음 목표는 뭘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 선수는 누구보다도 찬란한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겸손과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랜드슬램 달성과 다음 올림픽의 메달을 기대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한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까지 금메달을 획득하면 그랜드슬램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보다는 다음 LA올림픽에 이어 2032 브리즈번올림픽까지 계속 출전하는 게 목표예요.” 다음 올림픽, 그다음 올림픽까지, 박 선수를 오래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 본다.



박 선수의 파리올림픽 금메달

(사진=하시언 기자)